

21세기 초 남성패션에 표현된 낭만주의 특성

The Romanticism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Men's Fashion at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안광숙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조교수

An Kwang Sook

Assistant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낭만주의 시대와 남성복식

- 2.1. 낭만주의 시대 사회·문화적 특성
- 2.2. 낭만주의시대 남성복식의 특성

3.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변화의 특성

- 3.1.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변화
- 3.2.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특성

4. 21세기 초 남성패션에 표현된 낭만주의 특성

- 4.1. 관능성
- 4.2. 장식성
- 4.3. 이국성
- 4.4. 혼용성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시대적 양상은 다양한 패션의 변화와 자유롭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18세기 낭만주의시대 남성복식과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이 비슷하다. 이를 바탕으로 19세기 낭만주의시대 남성복식의 특성과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변화에 따른 낭만주의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낭만주의시대 남성복식의 특성은 몸에 꼭 맞는 'X'자형 실루엣으로 성적인 매력을 강조할 수 있는 관능성, 일정부분에서는 과거의 복고적 성향과 함께 색상과 디테일 문양 등에서 장식성이 나타났다. 또한 이국적인 색상이나 취향, 장식등의 이국성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색상과 소재매치의 혼용성이 표현되었다.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특성은 'X'자형, 역삼각형, 타이트한 실루엣으로 기존의 전통과 편견을 거부하고 남성도 여성처럼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며, 남녀복식의 구분이 모호하고 노출이 심한 관능성이 표현되었다. 또한 소재의 다양화에 따른 화려한 디테일과 문양을 사용한 장식성, 동양적인 문양이나 패턴, 소재 실루엣 등의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한 이국성,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소재와 다양하고 이질적인 소재매치의 혼용성으로 분석되었다. 실루엣에 따른 신체 곡선의 강조와 노출, 소재의 다양화와 성적

인 고정관념의 파괴 등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특성도 관능성, 장식성, 이국성, 혼용성 측면에서 낭만주의 시대의 남성복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남성복식과 그 특성이 유사하지만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과거 18세기 낭만주의 시대적 상황과 남성복식이 21세기 초 남성패션과 그 양상이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낭만주의 시대의 사회, 문화 및 복식의 특성을 연구 하였고, 이는 한 시대의 사회, 문화, 예술적 시대의 반영물이 복식에 상호 작용하여 발전한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으며, 21세기 초 남성패션에 대한 연구가 남성복식을 이해하고 미래 남성패션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낭만주의, 관능성, 장식성, 이국성, 혼용성

Abstract

The mode of the early 21st century men's fashion is similar to the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of men's wear in the 18th century of the age of romanticism in the fact that it creates diverse changes in fashion and new and free styles. Results of researching the features of men's wear in the 19th century era of romanticism and the romanticism featur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men's fashion in the early 21st century based on the above are as seen below. The features of men's wear in the age of romanticism are the sensuality that emphasizes sexual attraction through the 'X' shaped silhouette that is tight on the body, and the retroactive tendencies in some areas together with the color and accessories such as detailed patterns. In addition, it showed exotic colors and tastes, as well as accessories, and it expresses a mixture of various colors and materials.

The characteristic of 21st century men's wear is the refusal of existing traditions and stereotypes such as 'X' shaped, inverse-triangle and tight silhouettes, sensuality with severe exposure where men accessorize their selves like women and there is a vague line between men and women's wear, accessories that uses exquisite details and patterns through diversification of materials, exotic touch reflecting orientalism of patterns and material silhouettes, and mixture of diverse and

exotic material matching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e features of early 21st century men's fashion that is represented by the emphasis and exposure of body lines according to silhouettes, diversification of materials, and destruction of gender stereotypes, is on the same context as that of men's wear in the age of romanticism on the aspect of sensuality, decoration, exoticism and mixture. In addition, though it is similar to the men's wear and features of 19th century romanticism, it is evident that there is som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ocial environment. This paper studied the social and cultural features and character of dress in the age of romanticism on the presupposition that the timely conditions and mode of men's fashion was similar in the 18th century age of romanticism with that of the early 21st century. This once again confirmed that the reflections of social, cultural and artistic times of an era was applied in the development of dress, and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on early 21st century men's fashion will help improve understanding of men's wear and also assist in research on men's fashion in the future.

Keyword

Romanticism, sensuality, ornamentation, exoticism, mingler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모든 문화 예술의 영역들이 한시대의 거울이랄까 만큼 그 사회의 경향을 반영하듯 패션 역시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시대상을 반영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른 요인들과 함께 상호 작용하며 발전한다. 또한 한 시대가 가고 다른 시대가 와도 어느 일정부분 과거의 사회 문화, 예술적인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비슷하게 변형되어 다시 새롭게 재창조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대 남성복식 문화 역시 그 시대의 반영물로 20세기는 대부분 여성의 복식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회적으로 남성이 복식에 크게 관심을 갖거나 투자하는 것은 쉽게 용인되지 못했다.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사회적인 자기표현을 의복에 의존하는 경향이 낮아 여성과 달리 남성의 복식에서는 다양한 복식의 변형이나 장식

적인 요소가 들어갈 필요성이 적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남성의 복식은 개성의 표현보다는 실용성과 상징성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특징에 맞게 단조롭고 어두운 색상에 개성 없고 무난한 평범한 디자인과 진부한 옷감이 남성복의 주된 요소였다.

하지만 21세기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가 공존하고 있고 과거의 수동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복식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성적 계급의 붕괴와 개방적인 사고의 확산으로 남성들은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국적, 시간, 규범 등 다양한 경계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패션의 변화와 자유롭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갔다.(이경희, 김윤경, 2004)

이러한 21세기 초 남성패션 양상은 18세기 낭만주의시대 남성복식과 비슷하다. 낭만주의 시대 남성복식은 고전주의와 계몽주의 시대정신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전 남성복식에 비하여 딱딱한 형식과 규정을 거부하고 자유로움과 다양한 소재의 개발로 새롭게 변화하였다. 낭만주의는 이성과 인간의 사유 능력을 절대적으로 우월한 가치로 여겼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이성보다는 감성과 직관, 상상력이나 환상 등을 보다 긍정적으로 추구하였다. 이성보다는 감성을 우선시하는 시대의 풍조는 복식의 형태에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이는 신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실루엣과 화려한 장식,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갔다. 이처럼 21세기 초 남성패션양상과 낭만주의시대 남성복식양상은 그 전시대와는 다른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스타일의 추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비슷한 양상을 바탕으로 낭만주의 시대의 사회, 문화 및 복식의 특성을 고찰해 보고, 이 특성을 바탕으로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변화와 남성패션에 표현된 낭만주의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한 시대의 사회, 문화, 예술적 시대의 반영물이 복식에 상호 작용하여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줄 것이며, 21세기 초 남성패션에 대한 연구가 남성복식을 이해하고 미래 남성패션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우선 낭만주의 시대의 시대적 흐름과 복식의 변화를 고찰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21세기 남성패션의 변화에서 낭만주의 시대 남성복식의 특징과 비슷한 점을 도출하여 그것에 표현된 낭만주의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낭만주의 시대와

그 시대의 복식은 낭만주의 시대가 가장 활발한 1815년에서 1848년까지 왕정이 복고된 시점을 낭만주의 시대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각종 문헌, 서적 및 논문, 학술지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변화는 국내와 해외의 관련서적, 연속간행물, 인터넷 자료바탕으로 하였으며, 남성패션에 표현된 낭만주의 특성은 2005~2009년까지 패션 컬렉션으로 유명한 파리 맨즈 컬렉션과 밀라노 컬렉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2명의 패션전문가들이 1차 검증을 통해 낭만주의 시대 특성을 바탕으로 21세기 초 남성패션에서 낭만적 요소를 특성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가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금씩 남성복식의 틀을 잡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낭만주의 시대와 남성복식

2.1 낭만주의 시대 사회·문화적 특성

낭만주의의 정확한 의미와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낭만적(Romantic)이라는 말은 고전 프랑스어 'romanz'에서 나왔는데 라틴어에서 갈라져 나온 '로망스' 방언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세에서 '로망스' 또는 '로몽'이라는 말은 이러한 로망스어 중 하나로 쓰인 기사 이야기를 뜻했는데 대개 시로 이루어져 있고 종종 무엇인가를 찾으려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었다. 낭만적이란 의미는 대개 '고전적'의 대조가 되는 뜻으로 사용되며 감정의 절제보다는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을 쫓아가며 주관성과 독창성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뜻한다.(Duncan Wu, 이수명 옮김, 2002)

낭만주의는 먼 것, 색다른 나라에 대한 모험을 꿈꾸며 영감의 근원으로서 지나간 모든 시대를 끌어드렸다.(Marilyn J.Horn 외1인, 1992)낭만주의는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일어났고, 특히 문예부분에서 활발하였으며 다양성 있는 표현 속에서 개인적인 서정적 시풍과 정열적 감성을 강조했다.(이창순, 2002) 낭만주의는 문학, 연극, 미술, 복식 등에서도 실제 현실에 반해 점점 환상적이며 시적으로 기울어졌고, 중요하고 싶은 현재에 대해 보다 좋은 사회의 이상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 모델을 근세 귀족주의 사회에서 구하려고 했다. 낭만주의는 현실에서의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민중의 마음속에 생생한 창조력을 유발시킨다는 데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문학에서의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의 이성과 합리

추구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만큼 이성 대신에 감정의 권리를 주장하고 합리적인 것보다 비 합리적인 것, 불균형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추구하였다. 미술에서의 낭만주의는 대담한 구상과 강렬한 색채로 역동적이며 낭만적인 순간의 감정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고 이국적이고 동양적인 주제들도 많이 표현되었다.(이창순, 2002) 회화에서의 낭만주의는 기존에 내려오던 유형보다는 개성을,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면을 표현하였고, 색채를 강조했다며, 신고전주의의 절대적 이상미나 형식미보다는 약동하는 생명감을 동적으로 표현하였는데 기존의 정의에서 내려진 표현내용과 형식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특징으로 관능성이 크게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조각에서도 고전주의 형식의 미에 반하여 생명의 약동과 개성있는 표현들을 추구하였고, 고딕적 주제나 환상적인 주제, 역사적인 주제등 주제가 다양화되고 형태나 기법 면에서 개성과 생명력이 부가되었다. 신체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고전적인 틀을 벗어나 실제적인 신체의 형태를 사실적이고도 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육감적이며 관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새로운 주제나 형식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Germain Bazin, 1994)

건축에서의 낭만주의는 다른 조형 예술영역과 마찬가지로 고전주의의 대립적인 성격을 띠면서 중세의 고딕양식을 추구하였는데 회고취미, 이국취미, 자연숭배와 같은 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산업혁명에 따른 신재료와 기술이 부화된 과거의 양식 안에서 결합되어 창의적이고 혼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Wojciech G Lesnikowski, 1995)

낭만주의는 낡은 요소와 새로운 요소가 섞여 있어 과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도장래의 전망에 대한 새로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이현희, 김생기, 이은우, 2001)

일반적으로 낭만주의 양식이 유행한 시기는 1815년에서 1848년까지로 왕정이 복고되었다하여 왕정복고시대라고도 한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1세가 실각하여 추방당하고, 프랑스를 위시하여 유럽 각국에서는 반동세력이 증강하여 정치적인 혁명이 계속 일어났다.(백영자, 윤호순, 1989)

이 시기에는 전 시대의 귀족중심사회가 다시 재개되고 있었다. 낭만주의 시대는 전쟁과 혁명을 치른 뒤 유럽의 군주들과 지배계급은 1789년 이전의 구체제로 복고하기를 희망하였다.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계급차별을 다시 수립하고 특권을 부활시키며 사회를 혁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유럽제국의 반동보수 경향은 자연 구 귀족 중심의

사회가 되었고 생활전반에 걸쳐 지난날의 기호와 양식이 소생하기 시작하였다.(백영자, 윤희순, 1989)

복식양식의 두드러지게 귀족풍이 된 것도 이때였다. 의복에 있어 낭만주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들은 16세기의 과장된 칼라나 퍼스슬리브 등의 새로운 유행을 도입하였고, 혁명의 위협을 피하여 해외로 망명한 파리의 귀족들은 파리로 복귀하면서부터는 하이칼라와 깃털장식도 사용하는 등 로맨틱한 차림이 유행하였다.(백영자, 윤희순, 1989) 자본주의 발전 속에서 큰 변화를 하고 있는 프랑스는 주로 직물산업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고운면사를 만드는 자동방직기와 벨벳 직조기계 등의 직물기계의 발명이 있었고, 염색공장의 기능화로 다채로운 색조와 다양한 뉘앙스를 풍기는 직물이 기계생산된 것은 복식의 외관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산업혁명과 더불어 방직기와 기계의 발명에 따라 직물을 만드는 기계가 출현되었고 기계에 의한 직물의 공장생산의 개시는 복식사를 완전히 과거와 분리하여 변혁시켰다. 그리하여 영국은 근대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동력방직기를 만들어 세계 공장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교통 통신기관의 발달과 생활의 복잡화 상업의 대기업화, 잡지나 신문 등 저널리즘의 선전 또는 디자이너의 진출 등으로 인하여 복식의 일반화 및 국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낭만주의 시대 사회 문화적 특성은 과거로 돌아가 낭만적인 감성을 쫓아가려는 관능성, 다양한 직물의 발달에 따른 장식성과 혼용성, 역동적이며 강렬한 색채감의 동양적인 이국성, 새로운 변화에 대한 창조성으로 그 특성을 분류할 수 있다.

2.2 낭만주의시대 남성복식의 특성

남성복식은 19세기의 산업화 과정, 시민 사회의 성장과 유럽 내 귀족권력 및 권위에 대한 반발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으며,(안현주, 박민여, 2007) 기존의 과도한 장식을 배제한 복식은 자유, 의회민주주의, 자주성, 덕, 남성다움, 열정의 표시로 인식되었다. 1815년에서 1848년까지 왕정복고시대에 유행했던 복식에서의 낭만주의는 자본주의 영향으로 과거로 돌아가려는 귀족풍의 경향과 새로운 복식체계를 발전시키려는 시민풍의 경향이 공존하였다. 이 두 개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낭만주의 시대 남성복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실루엣

루이 18세에서 샤를르 10세로 이어지는 시기는 왕정이 복고된 시기로 모든 문화가 귀족풍으로 되돌

아간 것과 같이 남자의 복식도 변하였다. 19세기 초반부에는 남성들이 멋을 부린 반면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에는 산업혁명 최기의 공장 매연이나 디젤엔진의 기차여행 및 일반적으로 가속화된 속도의 도시화가 남성복에 영향을 미쳐 남성들은 보다 간편한 옷차림을 하게 되었다.(백영자, 윤희순,1989)

남자들의 기본 복장은 프락(frac), 질레(gilet) 그리고 판탈롱(pantalon)으로 한 세트를 이룬다.(정홍숙, 2005) 이 시기의 남성복식에 있어서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실루엣에 있다고 보아야겠다.

남성복식의 상의로서의 역할을 한 프락은 몸통부분이 꼭 맞았으며 앞은 허리선부터 뒤 옆선까지는 비스듬하게, 아랫부분은 직선으로 각각 재단되었다.

〈그림1〉은 1826년경 남성복으로 매우 꼭 끼는 형태의 프록 코트(frock coat)와 바지, 시계와 시계줄을 넣는 작은 포켓이 달린 싱글 여밈의 웨이스트 코트를 볼 수 있다. 목을 감싸는 크라바트는 높고 뺏뺏하며 형식적인 납작한 보로 끝맺음을 하였다.(정홍숙, 2005) 〈그림2〉는 1836년경 남성복으로, 프록코트의 앞자락이 라펠에서 단까지 계속되었고 무릎을 향해 내려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재단은 허리의 날씬함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루엣은 허리가 작을수록 매력적이었으므로 최대한 허리를 조이고 작아진 허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가슴과 힙에 패드를 넣어 가슴과 힙을 과장하였다.

여성복식에서 허리가 점차 작아지는 것과 같이 남성복도 허리를 꼭 맞게 하는 것이 유행하여 질레나 프락의 허리도 꼭 맞았다. 이러한 실루엣은 허리가 작을수록 매력적이었으므로 허리를 조이는 방법이 필요하여 〈그림3〉처럼 몸체 바로 위에 바스끄 벨트(basgubelt)로 허리를 조였다. (백영자, 윤희순, 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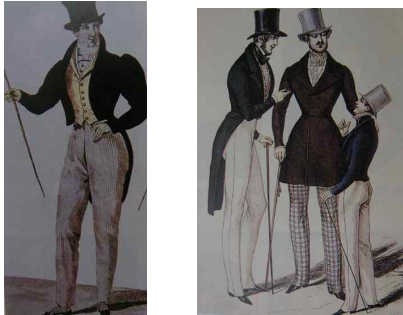
이와 같은 차림을 한 남성들은 댄디(dandy)라고 하고, 이들은 여성들과 조화를 이루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댄디 복식의 특징은 어깨에 개더를 잡은 프락코트, 패드를 넣은 가슴, 하이웨이스트, 코르셋으로 졸라맨 허리, 눈을 가릴 정도로 높이 맨 셔츠칼라와 크라바트 등이다.

질레는 복식에서 개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부분으로 형은 종전과 큰 차가 없으나 동체를 가늘게 하기 시작한 1825년경부터 앞 중앙 밑단이 뽀족하게 되었다. 색채는 판탈롱과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화려한 녹색, 청색, 백색등의 실크나 벨벳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한 단추나 보석을 달았다.(이정옥 등,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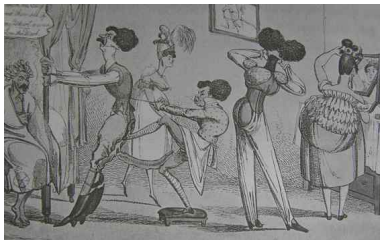
이시대의 의상에 일어난 변화 중 가장 큰 것은 판탈롱에 있다.(정홍숙, 2005) 프랑스 혁명군들이 착

용하였던 헐렁한 발목길이의 긴 바지에서 착안한 판탈롱은 허리에 약간의 주름이 있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져서 아래는 꼭 맞는 팽이모양의 페그탑(peg top) 형태이다.

19세기에는 한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군복이 남녀의 복장에서 장식적인 디테일을 위한 영감의 근원이었다.(블랑쉬페인, 이종남 등 1998) 이 당시 군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이었는데, 그것에는 군복에 대한 매력도 큰 몫을 했다. 빨강, 파랑, 금색, 흰색과 검정색이 혼합된 화려한 군복과 은색 검정과 절묘한 조화로도 19세기 군인이 되면 댄디가 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군인은 사회 규범 밖에 있는 이방인으로 규정되고 공개적으로 섹시한 외모를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를 매혹시켰다. 따라서 군인의 복장은 남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었다. 가슴에 패드를 대고, 허리는 잘록하게, 꼭 맞는 브리치즈로 강조한 허벅지 등 모든 나라들은 점점 더 화려하고 유혹적인 군복을 만들어내기에 바빴다.(신상옥, 1987)



〈그림1〉 낭만주의 남자복식(1826) 〈그림2〉 낭만주의 시대 남자복식(1836) 출처:정흥숙(2003)서양복식사



〈그림3〉 멋쟁이들(dandies, 1819)

출처: 블랑쉬페인,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옮김(1988), 『복식의 역사-고대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2.2.2. 소재

낭만주의 시대는 직기의 기계화로 직물공업이 발달하여 면, 모, 아마, 견 등 다양한 직물이 생산되었으며, 직물의 날염기술도 기계화 되어 뉘앙스가 풍부한 다채로운 색깔의 천이 기계로 생산 가능하게 되자 의상의 외관에 큰 영향을 가져왔고(이정옥 등, 1987) 직물공업의 기술적 진보나 생활의 향상은 의

상에 우수한 재료를 제공하여 로맨틱 양식의 형성에 이바지 하였다.(이정옥 등, 1987)

당시 남성복의 색상은 상·하의 모두 검정색이나 진한 갈색 등 어두운 색상인 반면에 질레는 녹색, 청색, 흰색 등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여 개성을 강조하였다. 질레는 붉은색과 금색실로 수놓은 갈색의 윤이 나는 새틴이 유행했다. 코트의 칼라는 대개 벨벳으로 만들어졌고,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실코로부터 어둡고 무거운 곤색, 짙은 자주색, 갈색, 밝은 청색, 암록색 등이 사용되었으며 줄무늬, 색깔 있는 벨벳, 바둑무늬, 무늬 있는 실크 등의 웨이스트 코트등을 입기도 하였다.(블랑쉬페인, 이종남 등 1998)

앞트임부분에 주름잡은 프릴이 장식된 셔츠가 평상복으로 유행하였고, 자수 놓은 린넨 소재의 다이아몬드 단추 장식이 달린 셔츠가 이브닝 웨어로 착용되었다. 질레의 칼리를 장식하기도 하는 크라바트(cravatte)는 매는 방법에 따라 우아함을 나타내었으며, 인도산의 머슬린에 풀을 먹여 조그맣게 매거나 또는 동양식이라고 하는 검은 실크로 된 작은 매듭 넥타이를 사용하였다.(이정옥 등, 1987) 크라바트는 풀을 먹인 머슬린, 벨벳, 실크 등의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꽃무늬, 물방울무늬, 줄무늬 등이 사용되었고(블랑쉬페인, 이종남 등 1998) 정교함, 세련됨, 엄격함, 엘레강스, 우아함 등을 표현하였다. 크라바트를 매는 방법은 낭만주의 시기 남성들의 취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한 영국의 귀족 남성들 사이에서 이국취향의 프랑스풍 복식이 성행하였으며, 인도식 터번이 유행하기도 했다. 터번은 길고 폭넓은 천을 한쪽 방향으로 꼬아서 머리에 두르고 깃털을 꽂아 완성하였다.

직조기술의 발달로 직물 생산의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느낌과 색상을 지닌 직물이 한 복식 안에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화려한 색상과 어두운 색상의 체크무늬와 단색을 조화시키고 모자는 의상과 대조적인 색상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낭만주의시대 남성복식의 특성은 몸에 꼭 맞는 'X'자형 실루엣으로 성적인 매력을 강조할 수 있는 관능성, 일정부분에서는 과거의 복고적 성향과 함께 색상과 디테일 문양 등에서 장식성이 나타났다. 또한 이국적인 색상이나 취향, 장식등의 이국성이 나타났으며, 직물생산의 발달과 함께 그 전과 다른 복식의 다양한 색상과 소재의 혼용성이 표현되었다.

다음은 낭만주의 시대 사회·문화적 특성과 남성복식의 특성은 다음 <표1> 와 같이 관능성, 장식성,

이국성, 혼용성으로 그 특성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특성	남성복식의 특징
<p>·사회적현상 -유럽각국의 정치적 혁명과 왕정복고시대 -자본주의 발전, 산업의 발달,방직기, 직물기계,염색 기술발달, 교통통신발달, 생활의 복잡화 및 국제화</p> <p>·문화적현상 -문학:감정의 권리주장. 비합리적이고 불균형. 불확실한 것 추구 -미술:대담한 구상과 강렬한 색채. 역동적이며 낭만적인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이국적이고 동양적인 주제표현 -조각:주제가 다양화. 형태나 기법면에서 개성과 생명력부가. 사실적·동적묘사. 육감적이며 관능적분위기묘사. 새로운 주제나 형식에 대한관심고조 -건축:중세고딕양식추구. 회고취미. 이국취미. 산업혁명에 따른 신재료와 기술이 조화. 창의적이고 혼용적인 양상</p>	<p>·실루엣 -몸통부분이 꼭 맞고 허리가 작을수록 매력적 -최대한 허리를 조이고 작아진 허리강조 -가슴과 힙에 패드를 넣어 가슴과 힙을 과장시킴 => X자형 실루엣, 타이트한 실루엣, 역삼각형 실루엣 -다른 나라의 군복이 장식적인 디테일을 위한 영감의 근원 -이국적 취향의 복식이 성해. 인도식터번 유형</p> <p>·색상 -비교적 화려한 녹색, 청색, 흰색을 사용하여 개성강조 -블랙, 갈색, 자주색, 곤색, 암록색, 줄무늬, 바둑무늬, 꽃무늬등 다양한 색상과 문양 사용</p> <p>·소재 -붉은색과 금색실로 수놓은 새틴, 화려한 벨벳 및 실크, 머슬린, 면, 마등 직물 생산의 발달로 다양한 소재의 사용</p>



낭만주의시대 특성	관능성, 장식성, 이국성, 혼용성
-----------	--------------------

〈표 1〉 낭만주의시대의 특성

3. 21세기 초 남성패션에 표현된 낭만주의 특성

3.1.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변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복식은 현대복식의 원형이 완성되면서 남성에게 패션은 단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주는 수단에 불과 했다. 더구나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그들의 지위와 권위는 의복을 통해 엄격하고 근엄한 이성적인 모습으로 포장되었다. 이와 같은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패션 인식은 남성의 성 역할 및 정체성에서 나타나듯, 그들의 패션에 관한 태도를 지극히 단순하고 소극적으로 만들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와 공존은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편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가져다주어 패션을 통한 여성과 남성, 과거와 미래, 이성과 감성, 진보와 회귀의 혼합을 복돋아 주었다.(김영인, 문영애, 이영숙, 이윤주, 2004)

21세기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인간다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인간중심의 휴먼테크나 감성 디자인의 등장을 야기 시키고 있다.(인터패션플레닝, 2007)

절대성에 대한 의미 또한 개개인의 독특함에서 오는 퍼스널리티(personaity)의 존중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개별성이 존중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고 창조하게 하였으며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취향을 다양하면서도 감각적으로 만들고 있다.(이경희, 김윤경, 2004)

이는 획일적인 사회의 성격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개성 추구, 자아실현 욕구 및 정체감을 충족시키려는 경향으로 전환되었다.(이경희, 2001)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성적 고정관념의 파괴이다. 과거에만 해도 남성의 노출은 금기시 되었고 오직 스포츠 등의 의상에서만 남성의 몸이 드러날 뿐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X'자형 실루엣의 유행과 함께 남성패션에서도 반바지가 빈번히 등장하고 민소매 티셔츠나 망사소매와 같이 신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림9〉은 존 레이의 작품으로 안에 이너만 입고 완전히 노출하고 부드러운 실크소재 두르므로 이는 기존의 남성복식이 남성의 몸을 은폐하고 남성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닌 여성을 바라보는 주체로 여기는 것에 대한 반발이자,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복식 기준에 대한 거부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성적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남성역시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주체라는 생각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 21세기 초 남성패션에 있어서의 특성은 20세기의 복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변화의 폭이 확연히 크게 나타났고, 특히 실루엣이나 소재, 디테일 등 표현 방법이 다양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변화에 대한 특성을 낭만주의에서 고찰된 특성 즉 관능성과 장식성, 이국성, 혼용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 변화를 실루엣, 소재, 신체노출, 성적고정관점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3.2.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특성

3.2.1. 실루엣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낭만적 특성은 실루엣의 변화다. 20세기는 'H'라인 중심이었던 실루엣이 21

세기에 들어서는 전체적인 슈트나 캐주얼웨어가 'X' 라인으로 바뀌었다.

21세기는 남성들은 모두 기존에 여성적 감각이라고 정의되었던 성향을 겸비한 신인류 남성들을 조명하고 있다. 남성이 갖춰야 할 근육의 힘과 감정을 배제한 냉철함이라는 가치와는 상반되는 부드럽고 감성적이며, 심지어 여성들보다 더 섬세한 감각을 자랑하는 남성들이 주목을 받는 데에는 그만큼 현대의 사회가 감성적 소통과 디테일을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듯 사소하게 지나쳤던 디테일들에 주목하고 외출을 위해 몇 시간씩 투자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한국경제 매거진, 2010)

이러한 시기적 상황이 낭만주의 시대처럼 실루엣이 허리를 강조하는 'X'라인이 주를 이루었고, 여성적인 느낌과 동시에 역삼각형의 실루엣에서 남성성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X'라인은 비단 옷 자체의 모양을 떠나 사회적 관념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루엣은 기존의 20세기 남성복식과 비교해 21세기 초 남성패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4>와 <그림5>는 20세기에 유행하던 새빌로우 스타일의 정장을 보여주는 실루엣이다. 이 두 그림은 한세기 동안 실루엣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새빌로우 스타일의 경우 허리에 라인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박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 딱딱한 어깨와 'H'라인 실루엣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부터 남성들의 정장은 그들이 공적인 생활에서 입게 되는 모든 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세기의 남성복식문화를 대표한 다고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림6>은 2006년도 스타일로 재킷에 라인이 들어간 정형적인 'X'형태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그림7>은 낭만주의 시대 복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그림8>은 허리라인의 절개선에 색상 대비를 하여 보다 극적으로 'X'라인 실루엣이 두드러지게 하여 허리를 강조한 것이다. 캐주얼복에서도 이러한 'X'스타일의 실루엣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X'실루엣과 함께 21세기 초 남성 패션에서의 변화는 슬림한 실루엣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이는 'X'라인 실루엣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관능성과 함께 성적 고정관념의 변화를 알 수 있다.

21세기 남성패션은 그것에 사용된 디자인이나 소재, 장식 등이 기존의 여성복식에서 대다수가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복식을 통한 표현이 자유롭고, 신체 노출도 자연

스럽게 여겨지던 여성의 복식이 남성패션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초반의 남성은 자신을 꾸미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프로테스탄트적인 금욕주의 아래, 검소하고 소박한 복식행동을 취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살아왔다. 일반적으로 신체노출이 가능한 복식행동은 오직 스포츠 분야에 국한 될 뿐이었다. 그러나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급속도로 여성의 복식과 남성의 복식이 동질화되어가고 남녀의 복식을 구분 짓기가 애매하다. 이러한 남녀의 복식을 통한 성적 고정관념의 파괴는 20세기까지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그림9>와 같은 전신노출이나 '치마'에서도 드러난다. <그림10>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으로 미래를 선도한 유명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패션쇼에서 치마를 입은 남자 모델들을 등장시켜 성적 고정관념을 없애는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성적 매력 추구는 단순히 남성의 여성 패션의 요소를 차용하는 것이 아닌 남성 개인의 감성을 발휘하여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하기 위하여 발달된 부분이다.(신혜정, 하지수, 2006) 이러한 특성은 개인적인 감성에의 호소란 측면에서 여성적인 취향을 드러내는 경향도 있지만 오히려 남성적인 매력, 감성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여성이나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위하여 자신을 꾸미는 남자는 과거 낭만주의시대 덴디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4> Formal Daytime Wear(1924~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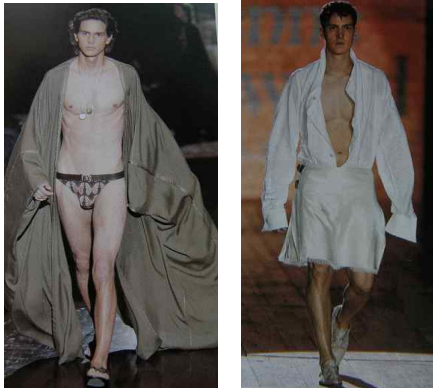
<그림5> Yuppie Style(1980년대)

출처:정흥숙(2003)서양복식사



<그림6> Roberto Menichetti

〈그림7〉 Alexander McQueen
 〈그림8〉 Alexander McQueen
 출처: 2008~2009 F/W paris.Milano collection
 2008~2009 F/W paris.Milano collection
 2009S/S paris.Milano collection



〈그림9〉 John Ray
 〈그림10〉 Vivienne Westwood

출처 : 2005S/S paris.Milano collection
 2006S/S paris.Milano collection

3.2.2. 소재

21세기 초 남성패션은 지금까지 주로 여성복 디자인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직물, 색채, 디자인의 도입을 통해 개성화되고 있고(정은정, 황선진, 2004)그 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화려한 색감의 소재인 러플, 메탈, 레이스 등 파격적인 모습이 나타났으며, 그러한 파격적인 소재들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소재로는 〈그림11〉과 같은 메탈 소재를 들 수 있다. 특히 21세기 사이버 문화를 바탕으로 그래픽한 트리밍, 피부와 밀착되는 메탈릭탑, 크롭도금된 바디스와 핫팬츠 등을 사용되었으며, 소재의 다양화로 사이버적 요소를 가장 잘 표현하는 광택있는 메탈릭 소재, 실버코팅한 직물, 패딩된 합성직물, 투명한 비닐, 매끄러운 가죽 등이 소재의 주류를 이루기도 한다.(조규화, 이희승, 2004)

흔히 말하는 반짝이는 소재 즉 골드, 보석, 은, 광택소재를 이용한 옷들은 과거의 왕조에서만 볼 수 있거나 거의 여성들의 의복에서만 주로 사용되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는 남성이 메탈 소재를 사용한 것은 남성들도 이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과거에 왕족사회에 대한 향수가 현대적 소재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1세기 초 남성패션에서의 낭만적인 소재변화는 러플과 벨벳의 사용을 들 수 있다. 〈그림12〉이 소재들은 주로 여성의 복식에 사용되었던 소재이고, 매우 고급스러우며 여성스러운 소재로 알려져 왔다. 이는 과거의 귀족복식에서 주로 쓰이던 소재로 앞에서 언급한 메탈소재에 담긴 귀족사회, 왕족사회에 대한 향수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21세기 초에서는 이국적인 소재가 빈번히 남성의 복식에 등장한다. 20세기 냉전체제의 붕괴와 중동전쟁의 반발, 그리고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해 서양인들이 가지는 신비주의적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의 패션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이국성은 21세기 초 남성패션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이국적인 소재의 사용은 남성복식을 보다 화려하고 장식적인 요소를 더해 주었다.

21세기 초 남성패션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의 하나는 〈그림13〉와 같은 스판덱스로 이는 몸의 곡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몸에 붙는 타이트한 소재가 유용한데 이는 몸에 붙는 속성이 있어 남성패션에서는 더욱더 신체의 곡선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소재의 변화는 시대적 미의 가치전환과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11〉 Roberto Menichetti 〈그림12〉 Alexander McQueen 〈그림13〉 Miuccia Prada

출처: 2005~2006 F/W paris.Milano collection
 2008~2009 F/W paris.Milano collection
 2008~2009 F/W paris.Milano collection

다음 〈표2〉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변화와 그 특징을 보여준 것으로 여기에서 관능성, 장식성, 이국성, 혼용성의 특징이 나타났다.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변화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특징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	.실루엣
.인터넷과 과학기	-전체적인 슈트나 캐주얼웨어가 'H'라인에서 'X'라인으로 변함
.편리함	-부드럽고 감성적이며 섬세한 패션과 디테일에 주목
.인간중심의 휴먼	-노출이 심한 의상이나 핫팬츠 및 스킨셔츠로 관능미 강조

테크나 감성디자인 등장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개성추구 .자아실현욕구 및 정체감의 충족 .성적 고정관념의 파괴-여성과 남성을 구분 짓는 성적 고정관념과 복식 기준을 거부	-슬림한 실루엣 형태의 여성화 -남녀복식의 구분이 모호-남성의 치마, 전체적인 노출 -다원화의 영향으로 이국적인 스타일 디자인이나 문양 .소재 -여성복에 주로 쓰인 화려한 색감의 소재인 러플, 메탈, 레이스, 자수 등 사용 -사이버 문화를 바탕으로 그래픽한 트리밍, 피부와 밀착되는 메탈릭 -소재의 다양화로 사이버적 요소 증가, 광택있는 소재, 투명한 비닐 등 소재의 혼용 -이국적인 문양이나 장식의 소재 사용 -반짝이는 골드, 보석, 금박장식
---	---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특성	관능성, 장식성, 이국성, 혼용성
------------------------	--------------------

〈표 2〉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변화와 그 특성

4. 낭만주의 시대 남성복식과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특성비교

본 연구는 낭만주의 시대 남성복식과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공통적인 특성, 즉 관능성, 장식성, 이국성, 혼용일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현된 양상을 살펴 보았다.

4.1. 관능성

낭만주의 시대 복식에서는 16세기 르네상스 이후 혁명기까지 지속되었던 'X'자형 실루엣의 부활과 함께 노출과 은폐, 과장을 적절히 사용하여 여성의 성적 부위를 강조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코르셋을 사용하여 허리를 조여 주면서 동시에 가슴을 더욱 강조하고, 벨 모양으로 부풀린 스커트를 착용했다. 19세기 낭만주의의 남성복식에서도 이와 같은 여성의 관능적인 복식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관능성은 'X'자형 실루엣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19세기 남성의 기본 복장에서는 허리를 꼭 맞게 하는 것이 유행하였고, 이러한 실루엣은 허리가 작을수록 매력적이었으므로 허리를 더욱 조여 가슴과 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낭만주의 시대의 관능성은 이전의 다른 시기에 드러난 관능성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사실상 낭만주의 남성복식은 어깨와 가슴을 부풀리고, 타이트한 하의를 입는 등 르네상스 비롯한 다른 시기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낭만주의의 남성복식만이 의복의 기본 구성에 있어서 현대의 복식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21세기 현대 남성의 기본 복식인 재킷, 셔츠, 바지, 조끼 등은 19세기 낭만

주의 시대에 프록, 질렛, 판탈롱 등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 21세기 초 남성패션도 낭만주의시대 남성복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X'형 실루엣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낭만주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실루엣이 관능적인 남성을 표현하였다면 21세기는 이러한 실루엣은 과거의 낭만주의 시대 복식을 차용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였는데 〈그림 14〉은 약간의 유희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21세기 초 남성패션은 정장에 허리라인을 넣고, 몸에 붙은 셔츠와 달라붙은 바지를 매치하고 눈에 띄는 허리띠를 함으로써 골반을 중심으로 한 'X'자형 실루엣을 창조한다.

이러한 관능성은 남성의 성적 사고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남성복식에 있어서 성적인 매력과 그에 따른 관심은 금기시 되어왔다. 그러나 21세기의 남성패션은 기존의 전통과 편견을 거부한다. 현대는 남성도 여성처럼 자신을 꾸미고 치장 할 수 있는 존재이며, 자신의 성적 매력을 극대화 시킬 수도 있다는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21세기 남성들은 당당하게 관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억압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남성의 신체 그 자체를 보여주며 성적 매력을 발산하려 한다.

또한 21세기 남성패션에서는 신체의 직접적인 노출을 사용한다. 신체의 노출이나 소재의 타이트함에서 오는 실루엣이 오히려 관능성이 두드러졌다. 망사나 실크소재와 같은 비치는 소재를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 남성의 몸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스킨니 팬츠나 〈그림15〉와 같은 짧은 반바지, 〈그림16〉는 비치는 소재로 분홍색의 색상을 사용하여 몸을 은근히 노출시킴으로서 관능성을 표출하였다.



〈그림14〉 Dries Van Noten 〈그림15〉 Byblos

〈그림16〉 Riccardo Tisci

출처: 2005S/S paris.Milano collection
 2008-2009 F/W paris.Milano collection

4.2. 장식성

장식의 사용에 있어서 낭만주의는 그 이전 시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낭만주의 이전 시대에는 실제 보석을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금, 은, 루비 등 값비싼 보석을 직접 의복에 부착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이에 반해 낭만주의 시대의 장식은 실제 보석이 아닌 모조품을 사용하여 장식한다. 또한 보석 이외의 다른 장식 방식이 더욱 발전하여 리플이나 레이스가 더 발달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대보다 발달한 직조기술에 의한 것으로서, 21세기 초 남성패션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19세기 남성복식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장식성은 디테일과 트리밍에 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질레는 붉은색과 금색 실로 수놓은 갈색의 윤이 나는 새틴이 유행했다.(백영자, 윤효순, 1989) 인포멀 웨어의 경우 앞트임 부분에 주름잡은 프릴을 장식한 간단한 셔츠를 착용하였으며 이브닝 웨어에는 자수 놓은 린넨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단추를 단 고급스러운 셔츠를 착용하였다. 케이프가 달린 외투는 안에 털을 대거나 실크를 대었으며, 칼라는 주로 벨벳을 사용하는 등 소재에 있어서도 장식성이 두드러졌다.(블라쉬페인, 이종남 등, 1998)

21세기 초 남성패션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도 장식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식성은 환상적인 색과 다양한 소재들의 발달로 여성복식을 모방한 디테일 및 트리밍의 기법등을 잘 표현되고 있다. 특히 밀리터리 패션의 유행과 함께 그에 따른 바츠, 뱀지, 훈장, 휘장 장식등이 남성패션에 유행하게 되었다. 기존의 밀리터리 옷의 기원이 군복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한 황금 루프, 체인, 버튼 등의 장식은 밀리터리 패션의 기본 정신과 함께 장식적인 특성을 보인다. 또한 <그림17> 처럼 화려한 브로치나 코사지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의 사용도 21세기에 와서 급증하게 된다. 즉 메탈소재의 옷이나 그에 장식된 보석 액세서리 등은 옷의 기능적인 측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순수한 장식적인 기능만을 하게 된다. <그림18> 는 존 갈리아노 작품으로 여러 가지 소재와 콜라주 기법등을 이용하여 남성패션이지만 소재와 화려한 컬러를 사용하여 장식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림19> 은 셔츠에 금사장식을 둘러 화려함과 함께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장식성은 장식뿐만 아니라 옷에 사용된 소재에서도 크게 드러난다. 과거의 남성복은 무늬와 패턴이 거의 없었던데 비하여 21세기 남성패션은 다

양한 염료를 통한 염색과 스판덱스, 실크, 린넨, 벨벳과 같이 과거에 여성의 복식에서만 주로 이용되었던 화려하고 장식적인 소재를 택함으로써 그 화려함과 장식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17> Mercibeaucoup <그림18> John Galliano
<그림19> Junya Watanabe

출처 : 2008S/S paris.Milano collection
2006S/S paris.Milano collection
2006S/S paris.Milano collection

4.3. 이국성

신대륙 발견 이후 서양 세계는 동방과의 접촉이 잦았으며, 따라서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세계를 보는 더 넓어진 시각을 갖게 되었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무역이 행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낭만주의 시대는 '지구촌 사회'라고 불리는 현대와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비견될 만 하다. 19세기 영국의 귀족 남성들 사이에서 이국취향의 프랑스퐁 복식이 성행하였다. 특히 시느와즈리(chi noiserie) 열풍은 프랑스 및 유럽 전 지역을 휩쓸었다. 낭만주의 시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국적 취향을 보여주는 아이템으로 터번을 들 수 있다. 아라비아풍에 대한 동경을 보여주는 터번은 길고 폭넓은 천을 한쪽 방향으로 꼬아서 머리에 두르고 깃털을 꽂았다. 터번과 함께 수입된 인도의 캐시미어 솔은 신체 보호와 보온 그리고 장식을 목적으로 유행하였다. (블라쉬페인, 이종남 등, 1998)

장신구에 있어서도 이국적 취향이 잘 드러나는데, 이집트로부터 샤를 10세에게 기린 선물이 올 때에 아라 지라프(a la goraffe)라고 불리는 남녀 드레스의 많은 액세서리들이 함께 들어와 사용되었다.

21세기 초 남성패션에서의 이국성은 주로 현대 세계 패션의 주류를 이끄는 서구적 관점이 다분히 반영된 것이기는 하나, 비서구권 국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진 하나의 유행이 되어가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가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

과 함께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낭만적인 이국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색상이나 문양, 복식의 형태 등에서 볼 수 있다. 예를들면 티셔츠에 동양권의 글씨를 새긴다거나, 티셔츠에 화려한 이국적인 문양을 새기는 것,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이나 셔츠, 기모노 스타일의 소매, 인디언 스타일의 패턴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20〉과 〈그림21〉은 다미르 도마의 작품으로 이 작가는 전체적인 실루엣과 패턴물을 일본적인 느낌으로 사용하였고 여기에 타탄체크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이국성을 나타냈다. 〈그림22〉역시 화려한 장식성과 함께 인디언풍의 이국성이 드러났다. 이처럼 21세기 남성패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국성은 일본, 중국풍의 동양적인 패션과 아랍계 패턴에서 가장 잘 들어난다. 용이나 매화, 대나무와 같은 중국적인 이미지의 문양이나 기모노풍의 스커트와 소매 등은 각각 중국과 일본에 대한 서구 사회의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한다. 그리고 아라베스크 문양이나 통이 넓은 마 바지, 터번 등은 아랍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20〉 Damir Doma 〈그림21〉 Damir Doma
 〈그림22〉 John Ray
 출처: 2006~2007 F/W paris.Milano collection
 2006~2007 F/W paris.Milano collection
 2005S/S paris.Milano collection

4.4. 혼용성

혼용성은 서로 조화되지 않는 대상이나 복식의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여성미와 남성미의 혼합등 이질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매치시키는 것이다.

혼용성은 기술의 발달로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복식에 있어서 기계화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는 전대미문의 큰 발전이었다. 19세기 영국 목면 공업부분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그 후 유럽 각국으로 퍼지게 되었다. 1820년대에 고운 면사를 만드는 자동 방적기와 벨벳 직조기 등이 발명되었고, 레이스의 그물 바탕을 닮은 직물인 보비네트(bobinet)가

1809년에 성공적인 기계로 생산되었다. 직물의 날염 기술도 기계화되어 벨벳을 서너 가지 색으로 동시에 날염할 수 있게 되었다. 낭만주의 복식에서는 다양한 느낌과 색상을 지닌 직물들이 한 복식 안에서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환상적인 느낌을 주었다. 복식의 색상 또한 화려한 색상과 어두운 색상. 체크무늬와 단색을 조화시키고 모자는 의상과 대조적인 색상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21세기 초 남성패션 또한 혼용성을 기본으로 한다. 산업 혁명 이후 끊임없는 직조기술의 발달을 다양한 옷감을 만들어 내었고, 합성 섬유를 비롯한 다양한 소재가 의복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1세기 남성복식은 다양한 소재가 어우러진 경향을 갖게 되었고, 이는 기존에 잘 사용되지 않던 요소를 함께 쓰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혼용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되었다. 이처럼 혼용성은 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색채와 프린트를 지닌 직물이나 트리밍에 의해, 하나의 복식 안에서 다양한 색채, 소재가 대조. 융합되어져 나타나는 특성이자. 〈그림23〉는 남성정장 복에 큰 스카프를 메어 여성스러운 느낌을 표현하였고, 〈그림24〉은 21세기 시대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소재 즉 모피, 메탈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장식적인 혼용성을 엿볼 수 있다.

혼용성의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사고관념에서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것들, 즉 〈그림25〉과 같이 짧은 반바지와 정장 셔츠와 타이를 맨 서로 다른 스타일의 혼용성을 엿볼 수 있다. 19세기 낭만주의의 혼용성과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혼용성에서는 21세기의 패션이 더욱 다양화되고 다원적인 느낌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3〉 Dries Van Noten 〈그림24〉 Alexander McQueen
 〈그림25〉 Masaki Matsushima
 출처 : 2005~2006 F/W paris.Milano collection
 2005S/S paris.Milano collection
 2009S/S paris.Milano collection

특성	낭만주의 남성복식의 특성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특성
관능성	.여성복과같은'X'자형 실루엣으로 허리는 조이고 어깨와 가슴을 부풀리는 관능성 .타이트한 하의 =>과거 복고적 성향과 함께 현대복식과 긴밀한 연관성 이름	.낭만주의 시대와 유사한 'X'형 실루엣 .신체의 노출이나 소재의 타이트함에서 오는 관능미 .부드러운 소재와 실루엣으로 인체선이 그대로 드러남 .다양한 신소재로 남성의 몸을 그대로 드러내는 관능성
장식성	.전 시대와는 다른 실제 보석이 아닌 모조품을 사용한 장식 .직조 발달에 따른 소재의 다양한 변화 러플이나 레이스 사용에 따른 장식성 .크라바트를 이용한 멋스러운 장식 .군복에서 영감을 얻어 남녀복장에 장식적 요소 도입	.다양한 소재에 따른 여성스런 장식성 .화려한 브로치, 코사지, 목걸이, 스카프를 이용한 장식 .여러가지 콜라주기법을 이용한 화려한 장식 .낭만주의 시대와 같은 금사 수의 화려한 장식
이국성	.동방과의 잦은 접촉으로 이국취향의 복식이 유행 .아라비아풍의 터번과 깃털장식 .인도의 캐시미어울 등 유행	.서로 다른 문화요소가 혼합되어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과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이국성 .동양적인 색상, 문양, 복식형태에서 동양미 .일본,중국,인디언풍등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된 다양화된 이국성
혼용성	.직물기계의 발달로 다양한 소재의 개발 .다양한 느낌의 색상과 재질등이 복합적으로 남성복식에 사용 .전 시대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색상, 체크무늬등 다양한 소재 믹스의 혼용성	.더욱 발전된 섬유산업으로 다양한 소재개발 .남성의 성적 고정관념의 변화로 여성스런 장식과 디테일등 소재를 믹스 .다양한 색채, 이질적인 소재와 스타일의 매치로 21세기 패션의 혼용성이 두드러짐

〈표 2〉 낭만주의 시대 남성복식과 21세기 초 남성 패션의 변화와 그 특성 비교

5. 결론

21세기는 수많은 정보과 가치가 공존하고 있고 과거의 수동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복식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21세기 남성패션의 시대적 양상은 다양한 패션의 변화와 자유롭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18세기 낭만주의시대 남성복식과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이 비슷하다. 이를 바탕으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특성과 남성복식의 특성,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변화에 따른 특성과 낭만주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낭만주의 시대 사회 문화적 특성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복고성과 낭만적인 감성을 쫓아가려는 관능

성, 다양한 직물의 발달에 따른 장식성과 혼용성, 역동적이며 강렬한 색채감의 동양적인 이국성, 새로운 변화에 대한 창조성으로 그 특성을 분류할 수 있었다.

낭만주의시대 남성복식의 특성은 몸에 꼭 맞는 'X'자형 실루엣으로 성적인 매력을 강조할 수 있는 관능성, 일정부분에서는 과거의 복고적 성향과 함께 색상과 디테일 문양 등에서 장식성이 나타났다. 또한 이국적인 색상이나 취향, 장식등의 이국성이 나타났다으며, 다양한 색상과 소재의 혼용성이 표현되었다.

21세기 초 남성패션에 있어서의 특성은 20세기의 복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변화의 폭이 확연히 크게 나타났고, 특히 실루엣이나 소재, 디테일 등 표현 방법이 다양해졌다. 발전된 사회, 문화 경제적 상황이 낭만주의 시대처럼 실루엣이 허리를 강조하는 'X'라인이 주를 이루었고, 여성적인 느낌과 동시에 역삼각형의 실루엣에서 남성성을 동시에 표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소재의 사용 특히 메탈, 벨벳, 스판덱스 및 반짝이는 광택의 사용은 고급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관능성과 장식적인 특성이 이국적인 특성을 엿볼 수 있었고, 이러한 소재의 믹스는 혼용성의 특성도 나타내었다.

21세기 초 남성패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성적 고정관념의 파괴로 이는 남성 역시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주체라는 생각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개인적인 감성과 여성성 및 남성성이 같이 감을 알 수 있다.

실루엣에 따른 신체 곡선의 강조와 노출, 소재의 다양화와 성적인 고정관념의 파괴 등으로 대변되는 21세기 남성패션은 관능성, 장식성, 이국성, 혼용성 측면에서 낭만주의 시대의 남성복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남성패션의 특성은 기존의 전통과 편견을 거부하고 남성도 여성처럼 자신을 꾸미고 치장한 관능성, 화려한 디테일과 문양을 사용한 장식성, 동양적인 문양이나 패턴, 소재 실루엣 등의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한 이국성,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소재와 다양하고 이질적인 소재매치의 혼용성으로 분석되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남성복식과 그 특성이 유사하지만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과거 18세기 낭만주의 시대적 상황과 남성복식이 21세기 초 남성패션과 그 양상이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낭만주의 시대의 사회, 문화 및 복식의 특성을 연구 보았고, 이는 한 시대의 사회, 문화,

예술적 시대의 반영물이 복식에 상호 작용하여 발전한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으며, 21세기 초 남성패션에 대한 연구가 남성복식을 이해하고 미래 남성패션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영인, 문영애 이영숙, 이윤주,(2004). 시각표현과 색채구성, 서울: 교문사.
- 두산세계대백과편집부저(2002),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서울: 두산.
- 백영자, 윤희순공저(1989),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 블랑쉬페인,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옮김(1988), 복식의 역사 -고대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서울: 까치.
- 신상옥(1987),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 신혜정,하지수(2006), 1990년대 이후 남성 패션에 표현된 로맨티시즘, 복식학회, 56호.
- 안현주,박민여(2007).메트로섹슈얼과 위버섹슈얼 이미지에 따른 남성패션 디자인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9권 3호.
- 이경희(2001), 패션 감성의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제1보).한국의류학회지, 25호.
- 이경희, 김윤경(2004), 남성 Fashion 디자인, 서울: 교문사.
- 이정옥,최영옥, 최경순 공저(1987),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 이창순(2002), 프랑스 문화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이현희, 김생기, 이은우공저(2001), 세계문화사, 서울: 삼광출판사.
- 인터패션플레닝(2007). 2007 패션 키워드, www.ifp.co.kr
- 정은정.황선진(2004).현대 남성복 변화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1991년부터 2003년까지 잡지분석을 중심으로-, 생활과학, 7호.
- 정홍숙(2005), 서양복식사, 서울: 교문사.
- 조규화, 이희승(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 채혜숙, 채금숙(2008).현대 복식에 나타난 에스닉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3호.
- 한국경제매거진(2010), 제44호, www.magazine.hankyung.com
- Duncan Wu, 이수명 옮김(2002), 낭만주의(Romanticism), 서울: 김영사.
- Germain Bazin, 최병길 역(1994), 세계조각의 역사, 서울: 미진사.
- Marilyn J. Horn외1인, 이화연외2인 옮김(1992), 의복 제2의 피부, 서울: 까치사.
- Wojciech G Lesnikowski, 박순관, 이기민역(1995),

- 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건축, 서울: 예경.
- 2005 S/S paris.Milano collection
- 2005~2006 F/W paris.Milano collection
- 2006 S/S paris.Milano collection
- 2006~2007 F/W paris.Milano collection
- 2007~2008 F/W paris.Milano collection
- 2009 S/S paris.Milano collection
- 2009S/S paris.Milano collection
- 2008~2009F/W paris.Milano collection